

# 동성애와 신학

신약 성경으로 본 동성애



## ● 신현우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신약 주석학 방법론: 동양적 개혁 신학의 성경 해석학], [누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동성애, 21세기 문화 충돌] 등 수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현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 유전자 연구의 선두주자 중 한 명인 콜린스<sup>Francis S. Collins</sup>는

일란성 쌍둥이가 한쪽이 게이일 때 다른 쪽이 게이일 확률이 20% 정도에 그친다는 통계 자료에 토대하여 동성애적 성적 지향은 유전자에 의해 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sup>1</sup>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는 동일하므로 만일 유전자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다면 유전자가 서로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한쪽이 동성애자이면 다른 쪽도 반드시 동성애자여야 하므로, 이러한 일치의 비율은 100%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10-20%에 불과한 통계 수치는 동성애가 유전자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쪽이 동성애자일 때 다른 쪽도 동성애자인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은 동성애가 유전자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일란성 쌍둥이 연구 결과는 동성애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으리라 예측하게 한다. 실제로 동성애 유전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동성애에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연구 논문마저도 아직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고 전제한다.<sup>2</sup>

2002년에 발표한 캐머런<sup>P. Cameron</sup>과 캐머런<sup>K. Cameron</sup>의 논문은 이성애자 전체에서 1-2%는 동성애로부터 이탈한 경우임을 지적한다.<sup>3</sup> 이처럼 사람들이 동성애로부터 탈출하는 현상도 최소한 이렇게 탈출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성애가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 동성애의 원인이 유전자가 아니라면 무엇일까?

프로이트<sup>S. Freud</sup>는 약한 아버지와 강한 어머니 사이에서 양육된 자녀가 동성애 성향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sup>4</sup> 모벌리<sup>E. Moberly</sup>는 동성 부모와의 관계 결함에 대한 보상 심리로 동성애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이론을 제안했다.<sup>5</sup> 로식<sup>Christopher H. Rosik</sup>은 동성애가 어릴 때의 성적 학대에 대한 조건 반사라고 주장한다.<sup>6</sup> 동성애가 성적 학대로 인한 조건 반사라면 동성애는 성적 학대라는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반응이다. 이러한 진단은 동성애가 치유될 가능성을 내포한다.

## 구약성경

레위기 18:22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지한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sup>7</sup> 레위기 18:24은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들이 이러한 죄를 범하다가 벌을 받았음을 언급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여기서 언급된 ‘그런 것들’은 레위기 18:6-23에서 나열한 근친상간, 월경하는 여인과의 성관계, 간통, 동성 간의 성행위, 짐승과의 교접이다. 이런 일을 행하면 땅이 더럽혀지고 마침내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레위기 18:27-28이 언급한다. 레위기 18:29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과 거주민 사회에 해당하는 적용임이 레위기 18:26에서 분명하다.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이어받으므로, 레위기 18:29이 명하는 관계 단절은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교회에 소속하고도 근친상간, 간통, 동성 간의 성행위, 짐승과의 교접 등을 지속하는 사람과는 교제를 끊어야 한다.

1) A. Dean Byrd, “‘Homosexuality Is Not Hardwired,’ Concludes Head of The Human Genome Project,” LifeSiteNews.com (2007년 3월 20일).

2) Sreeram V Ramagopalan, David A Dymment, Lahiru Handunnetthi, George P Rice and George C Ebers,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Human Genetics 55 (2010) 131-32.

3) “What Proportion of Heterosexuals is Ex-homosexual?,” Psychological Reports 91/3 (2002) 1087-97.

4) 윌리엄 윌슨, “동성애의 원인,” 『상담과 선교』 8/1 (2000) 8.

5) 윌슨, “동성애의 원인,” 10.

6) C. H. Rosik, “Sexual Orientation as a Conditioned Response to Childhood Sexual Abuse: A Rarely Discussed Factor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http://www.narth.com/docs/isminor.html>).

7) 이 글에서 한글성경은 표준새번역과 개역개정판을 사용하였다.

신약성경

신약성경도 동성 간의 성행위를 죄로 간주한다. 로마서 1:24-27은 동성애의 원인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생긴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사람들이 “정욕”에 따라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1:23).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신 결과 사람들은 마음의 욕정대로 행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행위가 동성 간의 성행위라는 진단이다. 로마서 1:29-31은 이러한 죄의 목록을 제시한다. 그것은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의, 분쟁, 사기, 적의, 중상모략, 하나님을 미워함, 오만불손, 무자비함 등이다. 그러므로 동성 간의 성행위는 모든 인간들이 범하는 다양한 죄들 중에 하나이다.

고린도전서 6:9-10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의 목록을 제시한다. 그것은 음행(매춘 등의 부당한 성행위), 우상숭배, 간음, 동성애 성행위, 도둑질, 탐욕부리기, 중상모략, 약탈이다. 여기서 동성애자들은 여성 역할을 하는 남자들(‘말라꼬이’)과 남성을 취하는 남자들(‘아르세노꼬이파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르세노꼬이파이’는 동성애 행위를 금하는 70인역<sup>8</sup> 레위기 18:22; 20:13에서 사용된 ‘아르센’(남자)과 ‘꼬이페’(침대)를 결합한 단어이다. 그러므로 ‘아르세노꼬이파이’는 동성애자로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sup>9</sup>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 표현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다.<sup>10</sup> 그런데, 나열된 죄 목록을 보면, 도둑질, 탐욕 부림, 약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성 간의 성행위는 특별히 더 악한 죄가 아니라 탐욕이나 약탈, 도둑질과 같은 죄이다. 바울은 이러한 죄를 상속적으로 범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죄를 씻음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고린도전서 6:11은 이것을 분명히 한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 행

위를 비롯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려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기는 길이다.<sup>11</sup>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는 세상 사람의 일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원리이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고전 5:9-10).

세상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전 5:11). 사도 바울은 그런 방식의 적용을 보여준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전 5:12-13).

교회 밖에 있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동성애이든 이성애이든 음행하는 자들은 권면하고 치유하여야 하며, 회개를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음행하는 경우에는 교회 밖으로 출교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7:21은 동성애 문제에 적용점을 제공한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바울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이것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논리이다. 그 상태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고 구원을 받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바울은 이어서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한다.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바울의 의도는 이어지는 문맥에서 분명하다. “너희는

8) 기원전 약 300년경 72명의 유대인들에 의해 고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 [번역자주]  
 9) 좀 더 자세한 논증을 위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D. F. Wright, "Homosexuals or Prostitutes: The Meaning of Arsenokoitai (1 Cor 6:9; 1 Tim 1:10)," *Vigiliae Christianae* 38/2 (1984) 125-153.  
 10)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과 동일한 뜻을 가진다(눅 18:16-17).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구원받는다는 표현과 동일한 뜻을 가진다(눅 18:25-26).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누가복음의 용례는 바울서신과 동시대 작품의 용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다'가 '구원받다'와 동의어임을 알려준다.

11) 동성애가 선행 타고난 것이라고 백빈 양보해도,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동성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마치 원죄가 타고난 죄이지만, 역시 죄인 것과 같다(양승훈, "소위 동성애 유전자는 면죄부인가," *통합연구* 16/1, 2003, pp. 189-195).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최종 권면이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영적 노예 상태에 있는 그들의 죄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들을 해방시키셨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해방된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신분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원리를 따르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동성애자의 상태에서 신앙의 길로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권면해야 한다. 동성애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치루고 우리를 해방하신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는 노예처럼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셨으니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할 길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할 수는 있지만, 계속 동성애 간의 성행위에 빠져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안 된다.

동성애 성행위는 위에서 신학적으로 진단한 바와 같이 죄의 일종이다. 그러므로 동성애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성경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알려준다.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한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롬 3:2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롬 3:23).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율법이 금한 다른 죄를 짓는다. 이러한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의롭게 교정하심으로 해결된다(롬 3:22). 로마서 5:9은 “우리(=예수 믿는 사람들)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은 사형이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무죄 선언이 내려졌다(롬 5:16). 이 논리를 적용하면 동성애 성행위를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는다고 보게 된다.

###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계속 동성애 성행위를 해도 되는가?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답한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롬 6:2).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롬 6:6)라고 하며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한다(롬 6:7). 바울은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그것은 과거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롬 6:5, 8) 죄로부터 해방된 삶을 사는 것이다. 죄를 지어도 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분명하다.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롬 6:12).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라는 정욕이 있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싶은 정욕이 있다. 그러나 이 정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 그런데 사람이 과연 스스로 죄의 정욕을 극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자로 묘사한다(롬 6:18).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롬 6:22).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롬 8:9). 하나님의 영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실행할 수 있게 하신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롬 8:4).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이다.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다(갈 3:2-6, 14).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데 그 대표적인 열매는 사랑의 실천이다(갈 5:22).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을 받게 하는 믿음을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부른다(갈 5:6).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의롭게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이며, 이 예수께서 자신을 대표하신 것을 믿고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동성애 행위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책이다.